



### 허학철 선생

허학철 선생은 1922년 4월 16일에 원동변강 면해  
주, 보보시예트 구역, 석하늬가 촌에서 빈농인의 가정에서 태  
생  
하시였다. 허학철 선생의 부모들은 농민이였으나 지주에게서 일차  
받은 토지에서 농업을 하였으며, 다음 1928년도부터 공산당정책에  
의한 농촌정리 협동화 정책시기부터 제일선참 협동조합에 가입하  
여 계속 농업에 종사하시였다.

허 선생은 1930년 즉 8세 되는 때부터 향촌 소학교에서 공  
북하기 시작하여 1935년에 졸업하시였다 허 선생은 넉넉하지 못  
한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 부터 아버지를 도와 일하  
시였으며 특별히 하기 밤학때이면 잘사는 집 자식들은 장여름 뭇  
각지를 하면서 놀고 있었으나 허 선생은 장여름 일하시였다.  
특별히 1936년에 아버지가 불구자가 된후 허 선생의 형제간  
은 (허 선생의 형이 있었음) 복원을 대신하여 원동으로 복귀한  
인 강제 어귀때까지 계속 협동조합에서 일하시였다. 강제 어귀  
에 의해서 허 선생은 부모들과 함께 우르벡한, 하유계호주, 중  
설침구역 아반가르드 협동조합에 도착하게 되었다. 즉 어귀  
에 협동조합이 없는 갈밭에 초콜막이 몇집있는 곳에 한인  
들이 강제 어귀인들이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그를 «아반가르드»라  
고 명명하였다 (한인말로 선봉이란 말임)

허학철 선생은 강제이주 이후 자기 협동조합과 친접해있던  
 협동조합 40개의 20주년을 맞아 공부를 계속하여 1942년에 고종을  
 마감하게 되었다. 강제이주당하여 중앙아시아 도착한 한인들중 다수  
 권호주씨 도착한 한인들의 경제행태에 비교적 좋아졌다 그것은  
 한인들은 자기 명예를 훼손시키고 전체지식을 일체리들을 전멸  
 시키고 언어 풍습까지 배척한 다른 언변교육은 되어와야하고 영  
 령함에 따라 그에 순종하면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반대하여  
 발언로 못하면서 다만 입에 들어가는 쌀만 쟁어 버린 아이  
 들의 복음이나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머리를 숙이고 일  
 한하였다. 그 결과에 비추어다가 잘리면서 밤은 툭툭하게  
 엮게 되었을 것이다. 강제이주 첫 열해동안 어린아이 들과 노인  
 들이 많이 죽었다 특히 1938년 봄부터 시작하여 여름동안에  
 특히 많이 죽었다 허학철 선생의 가정도 아버지는 볼주자가  
 되었으나 두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협동조합일에 열성적으로  
 참가한 결과 생활수준은 편 편하게 되었다. 허선생  
 은 고종 학창시절에 레닌공산청년회에 가입하였다. 당시  
 소련에 살고있는 청년으로서 공산청년회에 가입하지 못하면  
 다른 관공들이 그청년을 좀외면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던가 그  
 령지 아니하면 아주 행동이 불량한 사람으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1938년, 16세 되는해에 공청회에 가입하고 1942년에  
 고종을 마감한 다음 동년 8월에 소련인민이 독일을 반대하  
 는 위대한 조국전쟁과 관련하여 모스크바에서 임시로 어주하  
 여 하류권호주 캅한스크 시에 와 주재하여 있는 모스크바  
 자동차도로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되었다. 허선생은 동  
 대학에서 일년간 공부하신다음 소련 전선의 환경이 아주  
 긴장함과 관련하여 전체 남자들을 징병하여 다른 민족  
 들은 전부다 전선으로 화력하고 한인청년들은 로동전선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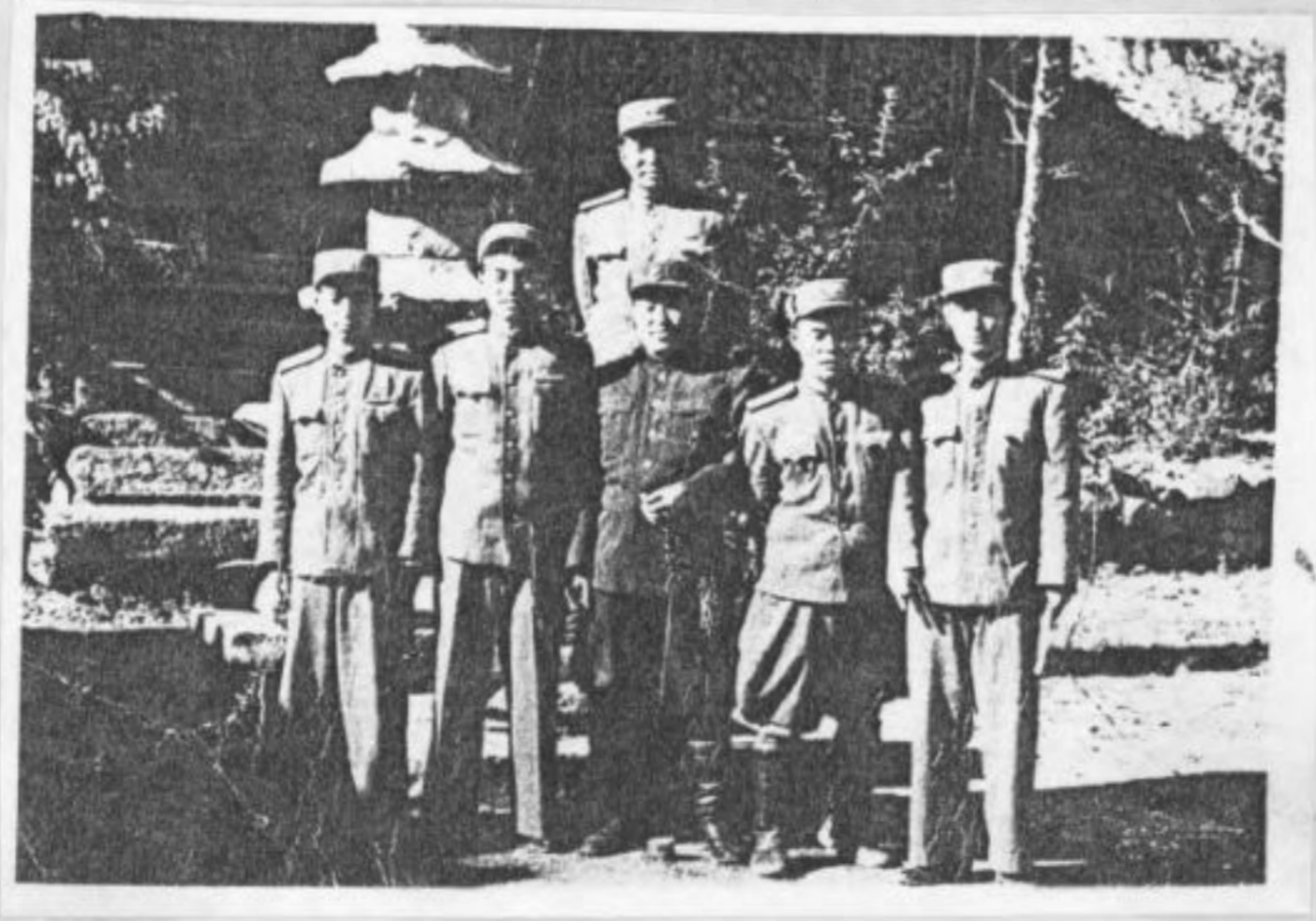
영영한 각 병방이나 전선가 가까이서 전개하는 철도, 철교 건설<sup>3</sup>  
실장이나 군수품 생산기업소에 파견하였었다. 허 선생도 이런  
로력 전선에 파견되어 1945년 11월까지 일하시었다.

1945년 11월에 집에 돌아오자 대학공부를 계속하려고  
결심하고 아직 장가로 들지 않고 있는 이때에 또 다른 사변이  
생기었다. 이번에는 공화국 타슈켄트 주 군사지원부에서 경식소  
령군 복무에 소병한다든 군사지원증이 나왔다 전쟁 4년간  
한 시간도 쉬지르 못하고 바빠 돌아간 형편에게 또다시 소병  
증이 오나니 대단히 비관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전쟁시기에는  
군대에 소병될 자격이 없어서 전선에 나가지 못하였서 아주 수위  
스러운 생활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복원군대 복무자격을 부여  
하여 출근할만큼 벌써 얼마쯤 반가웠는데 또 그와 더불어  
이번에는 군대에 동원되어 자기선조들의 고향인 조선으  
로 나가서 복무하게 되라하기에 더 두려운 생각로 못하고  
도리어 아주 반갑게 반역군 군사지원부에 달려가 모든 수  
속을 완수하였다.



사진은 허학철 선생이 1947년에 사단정치교문의  
책임 홍역관으로 재직시에 자기 친구와 같이 찍은 것이다.

허선생은 1945년 11월에 소련군 원공변강 제 일전선사령부 관하 제 25군단의 주재하여 있는 프링양에 도착하여 원전사령부 파견에 따라 함원도 인제군 사령부 총역관으로 1946년 12월 24일까지 일하시었다. 1946년 12월 25일부터 1948년 7월 19일까지 조선인민군 제 일사 정치교훈의 책임별역관으로 일하시었으며, 그후 1948년 7월 20일부터 1948년 12월 20일까지 <고려인민군신문> 출판사 번역원으로 일하시었으며, 그후 북한 지역으로 부하 소련군을 철퇴할시 모스크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지시에 따라 허백철 선생은 소련군 직에서 제영식하여 조선인민군 직에 전직하는 동시에 형식으로 소련공민권에서도 제정하여 북한공민권에 전직하였다. 소련군이 북한에서 철퇴하는 허선생은 1948년 12월 25일부터 1950년 10월 10일까지 계속 <인민군신문사> 출판물 군사검열원으로 일하시었다. 1950년 동족상잔이 시작되후 1950년 10월 10일부터 1951년 2월 16일까지 전근되어 <조선인민군 전사수첩> 출판사 부주필로 일하시었다. 1951년 2월 17일부터 1952년 5월 7일까지 <선전원 수첩> 잡지사 주필 책임에 제했으며, 그후 1955년 8월 28일까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산하 김책명칭 정치군관학교에 전근되어 처음 일년 동안은 군관학교 코어 강좌 강좌장으로 그후 부하 고급정치군관 단기 강습소 (삼개월강습) 소장으로 계속 일하시었다.



사진은 허선생이 김책 정치군관학교 강습소 소장으로 제실시에 찍은 것이다. 사진에는 김재욱 총정치국장 외 작은 리훈백 과 총정치국 각부장들이다. 4

김책 정치군관 학교는 명칭 그대로 1946년 초기에 아직 연변  
 군대도 정식 조직되기 전에 평양남도 대항리에서 원변군대의 숙외부  
 를 양성할 목적을 두고 원변군 정치학교라고 조직하고 초대 교장  
 에 김책선생이 추대되었다. 초대 이 학교에는 무었이나 각 병종  
 학부들이 다 있었던바 항공대도 중대의 규모로 있었다. 김책선  
 생은 계속 명예 교장으로 계시고 직접 학교 사업을 지도한 것은 다른  
 책임적 간부들이 많이 교체되면서 열히시였다. 다음 연변군대가  
 규모적으로 커지면서 각 병종별 학교들이 조직되어 - 강건보병군관학교,  
 포병군관학교, 정치군관학교, 통신군관학교, 항공군관학교 등으로 갈라지면서  
 내무원은 내무원 관관학교를 가지게 되었으며, 지어는 남한 별다른  
 학교까지 따로 있었다. 허학철 선생이 정치군관학교 로이 강좌장  
 으로 제설시에 즉 1953년 2월 초순 아직 남북이 총을 겨루고 동족  
 상잔을 계속할시 김책정치군관학교는 평북 황산군 도향산에  
 주재하고 있었던바, 바로 2월 초 2일날 밤에 유엔군 항공기 4대  
 29 비행기의 대포격을 받았다. 당시 학교에는 학생 약 2천  
 명과 강습생들이 약 300명 가량 공부하고 있었던바 학생들이나  
 강습생들은 한병도 손실로 받지 않고 다만 교원들만 2명의 손실로  
 행정 일꾼들이 많이 손해되었다. 총사령관은 약 120 명에 달하  
 었다. 북한이 명승지인 도향산이 대포격을 당하여 한인들의 문화유적  
 에 많은 손해를 입었다. 바로 도향산 산골에 있는 유명한 절간들은  
 아무런 손실이 없었으나 아래 뚝지였던 많은 절간들은 거이나 다  
 파괴되고 말았던 것이다. 포격 이후 학생들의 공부도 크게 중단되  
 지 않았으나 학습소나, 숙소나 할 것없이 전부다 분산하여 학생들은 소대  
 중대, 대대 별로 각 골짜기에 길에 은폐되는 곳에 건설하고 강습  
 소는 한개 골짜기에 소대별로 배치하였다. 그후 1953년 7월  
 28일 정전이 비준되는 날까지 포격은 다시 오지 않았으나, 학생  
 들이나 강습생들은 많은 시련을 당하였다. 허학철 선생은 강습  
 소 소장으로서 제설시 근 4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비교적 일을

잘 조직하는 간부로 평가 받으면서 위신있게 지내었다. 기본 교우 과목은 로어 강좌장으로 계시던 때와 같이 로어 과정을 강의 하였다.



허학철 선생은 1955년 8월 29일 북어 동화되어 '조선 인민군기 신문 부록필로 일하게 되었다. 어상에 보인 사진은 북 주필로 계시던 당시 신문사와 같이 찍은 사진이다.

허학철 선생은 신문사에서 약 일년 좀 풀리게 일하시고 1956년 12월 1일 북어 파견받아 평양군사아카데미 내 고급군관 강습소에서 1957년 1월 22일까지 강습을 받고 계속 그 강습소에서 정치부소장의 직책에서 1960년 9월 16일까지 일하게 되었으며, 그후 허학철 선생은 소련으로 귀국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허학철 선생은 북한에 나가 실근대에 23세의 청년으로 소련공산당에 입당하지 않았으며, 레닌 공산청년회 회원으로 처음 북한에서 일하시었다. 때를 에 허학철 선생은 계속 고급간부로써 득용되려던 반듯이공 당원이나 로동당원이 되어야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북한에서 활동해야 할것을 결심하고 1951년 2월에 김책 정치군관학교 로어 강좌장으로 계시시에 조선로동 당에 입당하시었다. 원일군대내 정치일군어란 누구나 다



사진은 허학철 선생이 북한 서해권선사령부 군사위원이신  
김일(김 리와나드) 장군과 같이 1957년에 찍은 것이다.

할것없이 우선 로동당원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하에서 또 앞으로의  
전망을 예견하면서 그렇게 하였던 것이다. 그 후 허 선생은 약 9월  
반 동안 로동당 당원으로써 꾸준하게 조국과 당을 위하여 일하시  
었다. 그러나 벌써 1956년에 로동당내에서, 조는 현권내에 내  
서 유명한 반소 반공산당 거두, 김일성 민족주의적 사회주의, 단독  
군주주의 세습제도의 사상적 지도자 책임하에서 진행된 사상  
검정 운동이 현권내에도 넓어져서 남한파, 중국파, 소련 파 등  
을 거어내 전부다 청산하고 자기 김일성 발발지산파 내에서도 수군  
이도, 5군이도 모두 쪽패를 갈라 청산하던 1958, 1959, 1960년에  
당진하에서, 아북파에로 속하지도 않고, 어떤사람과도 다정  
하지 만나 사상적 지도를 환원도 없는 허학철 선생은 북한  
형편으로 도저히 볼수 없는 북한에서 살 재미도, 전망도 없었다.  
허 선생은 아무런 짐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 회의에서 말하

쇼련과 등속이라니, 허가어 가족주의 일파니, 사대주의 자니, 쇼련관  
 료주의 잔당이니하고 비난하고, 전드리로 하였다. 그러지 않으니 과연  
 쇼련과 친구들은 다 침산 되어가고 있는 형태에서 참말북한에서  
 는 여 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다. 때문에 허 선생은 쇼련에  
 귀국할 목적으로 끝난 다음 1981년 2월에 모스크바에 도착하  
 여 쇼련군대에서 제대 명령을 받았면서 민족별위령 12령 2령  
 제 0882 호 1981년 6월 16일부 제 59 조 "13" 에 따라  
 해외에서 예비역으로 제대되면서 "노자" 군사징호를 부여  
 받게 되었다.

허 학생 선생은 쇼련에 귀환하신 후 자기 친척들이 많이 살고 계  
 시는 후르백 공화국 타슈켄트에 도착하시면서 외국에 가서 오  
 동안 일하신 공적에 따라 사택과 부호를 배정 받고, 아이들의  
 공부 문제, 자기와 조복업의 취직 문제 등을 다 해결 받고 여러  
 친척들과 등지들과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살며 일하시었다.  
 허 선생은 여러 공화국간 한문 신문 "레닌기치"의 타슈켄트  
 특파기자로 1982년 까지 일하시고 그 후 연금생 생활  
 을 하시다가 1990년 정월 8일에 68세를 일기로하시고  
 별세하시었다. 허 선생은 북한에서 일하시시어 수대한 국가적  
 표창을 받았으며. 2개의 훈장, 4개의 메달을 수여받으시어, 쇼  
 련정부의 수대한 메달을 수여받았다. 세상을 떠나시는 허  
 선생은 아들 하나, 딸 하나 농지를 경리에 갖추고 별세하시었다  
 현재 허 학생 선생 사모님 김연희사위씨 양은 아들과 같이  
 수대한 농지들을 대리해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타슈켄트에서 1997. 08. 16.